2011학년도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

제 1 교시

언어추론

성 명 : _____ **수험 번호** : □□ - □□□□□

1

○ 검사가 시작되기 전에 문제지를 넘기지 마십시오. 문항을 미리 볼 경우 부정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이 문제지는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사가 시작되면 문항 수를 확인하십시오.

○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표기하십시오.

○ 답안지에 수험 번호와 답을 표기할 때에는 답안지 우측에 있는 '답안지 작성 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에 따라 표기하십시오.

○ 시험 시간은 **09 : 10~10 : 30 (80분)** 입니다.

○ 이 문제지는 검사 종료 후 답안지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언어추론

1. 밑줄 친 단어가 의미에 맞게 쓰이지 않은 것은?

① 그는 주치의가 시키는 대로 섭생(攝生)을 해 오고 있다.
② 그 가문은 유산 분배 문제로 심한 내홍(內訌)을 겪고 있다.
③ 그의 폭언에는 더 이상 괘념(掛念)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④ 그 나라는 민관이 함께 발호(跋扈)를 하여 나날이 발전했다.
⑤ 인간사의 부침(浮沈)을 겪다 보면 인생에 대한 통찰력을 얻는다.

2. 밑줄 친 부분을 잘못 고친 것은?

① 지난달 적자를 메꾸려면(→메우려면) 쓸데없는 지출을 줄여야 겠어.
② 오늘이 네 생일이라고 해서 내가 조그만한(→조그마한) 선물을 준비했어.
③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수근거리다가(→수군거리다가) 나만 보면 입을 다물어.
④ 의자 등받이가 뒤로 제껴지니까(→제쳐지니까) 오후에 잠깐 쉴 때 편해서 좋아.
⑤ 언니가 지난주부터 어금니가 시려웠다는데(→시렸다는데) 아직 병원에 안 갔대.

3. 어법상 가장 자연스러운 문장은?

① 단어는 아무리 집중해서 외워도 시간이 지나면 잊히기 마련이라서, 결국 누가 더 많이 반복해서 단어를 암기하느냐에 달려 있다.
② 예상과 달리 전반기의 매출액이 목표치에 크게 미달하자, 사장은 가능한 빨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각 부서에 지시했다.
③ 이기주의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으로서 타인의 기회 박탈과 사회 전체에 해악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다.
④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경우 질병으로 인한 우울증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환자의 가족들은 항상 환자의 상태를 잘 살펴야 하며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의사에게 상담해야 한다.
⑤ 최근에 주택 거래량이 증가하고 아파트 분양에 청약자가 몰리는 등 부동산 시장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이를 본격적인 주택 경기 회복의 신호탄으로 보기에는 아직 때가 이르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잃어버린 자기 반쪽을 찾아다니는 게 사랑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랑은 자기 반쪽이나 온전함을 되찾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기 발이나 손이 병들었을 때 심지어 잘라 버리는 것도 참아 내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것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좋은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 혹시 달리 생각하나요?" 디오티마가 말했네.
"전혀 아닙니다. 디오티마 님." 내가 말했네.

(나) "그럼 그냥 간단히, 사람들은 좋은 것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거기에 '갖게 되기를'이라는 말을 덧붙여야 하지 않나요?"
"그래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늘 갖게 되기를'이라 해야 하지요?"
"그것도 그래야죠."
"그럼 결국 사랑은 좋은 것을 늘 갖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네요."
"맞습니다."

(다) "그게 사랑이라면,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할 때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 걸까요?"
"모르겠네요."
"몸에서든 영혼에서든 아름다운 것 안에서 출산하려 하지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건지 통 이해 못하겠네요."
"더 분명히 말하죠. 모든 사람은 몸도 영혼도 임신한 상태랍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출산하고픈 갈망이 생기지요. 그런데 임신과 출산은 조화롭지 않은 것 안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추한 것 안에서는 안 되고 아름다운 것 안에서만 할 수 있지요. (중략) 사실 단지 아름다운 것이 사랑의 대상은 아닙니다."
"아니면 뭔가요?"
"아름다운 것 안에서 하는 출산이 사랑의 대상이죠."
"일단은, 좋습니다."

(라) "아니,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럼 출산이 왜 사랑의 대상일까요? 출산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가사자(可死者)가 가진 불사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합의한 대로 사랑이 좋은 것을 늘 가지려고 하는 것이라면, 이로부터 우리가 좋은 것만이 아니라 불사도 갈망한다는 것이 자연스럽게 따라 나옵니다. 사랑의 대상이 불사라는 것도 이 이야기에서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고요."
이 모든 것들을 디오티마가 가르쳐 주었네.

(마) 한번은 그녀가 이렇게 물은 적이 있었네.
"이런 사랑과 갈망이 생기는 까닭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짐승들이 새끼를 갖고 싶어할 때면 얼마나 끔찍한 상태에 처하는지 봤지요? 서로 함께 섞일 때에도, 또 태어난 새끼를 기를 때에도 사랑에 애타는 상태가 됩니다. 새끼들을 위해 어떤 희생도 마다 않지요. 인간은 생각을 하면서 그런다 쳐도, 짐승이 그토록 사랑에 애타는 상태가 되는 까닭이 뭘까요?"
"모릅니다."
"우리가 앞에서 합의한 것이 사랑의 대상이라고 당신이 믿고 있는 게 하등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가사자는 할 수 있는 한

늘 있기를, 즉 불사를 추구하거든요. 그런데 그건 연속 생성 과정을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것 대신 다른 새로운 것을 늘 남기는 과정 말입니다. 사실 이건 동물 하나하나가 살아 있다고, 또 같은 것이라고 불리는 동안에도 그렇죠. 예컨대 사람은 갓난애 때부터 노인이 되기까지 같은 사람이라고 불리지요. 하지만 자기 안에 있는 것이 같을 때가 없고 늘 새로운 사람이 되며, 머리카락, 살, 뼈, 피 같은 것들은, 아니 몸 전체가 계속 소멸해 가고 있습니다. 몸만이 아니라 영혼의 경우도, 그러니까 습관, 성격, 믿음, 욕망, 쾌락, 고통, 두려움 등도 이와 마찬가지로 각각의 사람 안에 늘 같은 것으로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것들은 생겨나고 어떤 것들은 소멸합니다. 이것들보다 훨씬 더 특이한 일은 앎의 경우도 그렇다는 겁니다. 앎 가운데 어떤 것들은 우리에게 생겨나고 어떤 것들은 소멸하지요. 그래서 심지어 앎의 관점에서조차도 사람이 같은 사람일 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각각의 앎 하나하나도 같을 때가 없습니다. 우리가 복습을 하는 것도 앎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기 때문이거든요. 복습은 떠나가는 기억 대신 새로운 기억을 다시 만들어 넣어 줌으로써 같은 앎으로 보이게 하지요. 사실 모든 가사적인 것이 이런 방식으로 보존됩니다. 신적인 것처럼 모든 면에서 늘 같은 것으로 있음으로써 보존되는 게 아니라, 늙어 가고 떠나가는 대신에 자기와 닮은 새로운 것을 남겨 둠으로써 보존되지요. 이런 장치를 통해 가사적인 것은 불완전한 자신의 한계를 넘어 불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 플라톤, 향연 -

4. (가)~(마)에 나타난 디오티마의 논의를 <u>잘못</u> 이해한 것은?

① (가) : '자기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 사랑의 대상임을 사례를 들어 논증하고 있다.
② (나) : 한정 어구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사랑의 대상을 '좋은 것'에서 '좋은 것의 지속적 소유'로 구체화하고 있다.
③ (다) : '좋은 것' 대신 '아름다운 것'으로 논의 대상을 바꾸는 것에 대해 정당화하는 논의를 펼쳐 동의를 얻은 후, 사랑을 아름다운 것 안에서의 출산과 연결하고 있다.
④ (라) : 가사자의 불사 추구라는 논점이 앞서 합의한 것으로부터 도출됨을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출산이 사랑의 대상인 이유를 밝히고 있다.
⑤ (마) : 연속 생성의 사례들을 들면서 출산을 통해 불사를 추구하는 가사자의 사랑을 설명하고 있다.

5. (마)의 내용에 부합하지 <u>않는</u> 것은?

① 사람의 몸은 평생 동안 계속 변한다.
② 사람과 신은 존재 보존 방식이 다르다.
③ 사람과 짐승 모두 출산과 양육에 열의를 보인다.
④ 기억은 사람의 앎을 동일한 것으로 보존해 준다.
⑤ 동물은 연속 생성을 통해 계속 살아 있고자 한다.

6. 사랑에 관해 <보기>와 디오티마가 공통적으로 중요시하고 있는 것은?

<보 기>

본래 인간은 지금의 인간 둘이 붙어 있는 이중 인간이었고, 성(性)도 '남-남, 여-여, 남-여'라는 세 조합이 있었다. 그들의 힘이 강성해 신들에게 위협이 되자 제우스는 인간을 절반으로 잘랐다. 그런데 절반으로 잘린 인간들은 나머지 반쪽을 찾아 한 몸으로 돌아가기만 갈망하여 모든 일을 작파하다 멸종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제우스는 인간이 상대방과 몸을 합쳐 자식을 낳거나 결합의 만족을 얻어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었고 이것이 오늘날로 이어졌다. 이렇게 볼 때 사랑은 잃어버린 반쪽, 즉 애초의 자기 것을 찾아 한 몸을 이루려는 욕망이며, 그렇게 온전한 옛 자기를 되찾게 될 때 행복이 이루어진다.

① 자신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는 것
② 불완전에서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것
③ 상대방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
④ 만남의 목적보다 만남 자체를 추구하는 것
⑤ 육체적 결합보다 정신적 교감을 나누는 것

[7~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조선 시대의 조의(朝儀)는 군신(君臣)이 만나는 유교적 의식을 총칭했다. 조의의 참석자는 예를 받는 국왕과 예를 행하는 행례자(行禮者)로 구분되는데, 행례자는 조선의 관품 체제에 편성된 사람이었다. 조의에서 국왕의 자리는 근정전 내부에 남향으로 준비됐고, 행례자 자리는 마당에 북향으로 설치됐다. 가운데 길을 기준으로 동쪽에 위치하는 문관을 동반, 서쪽에 위치하는 무관을 서반이라 했다. 동·서반에는 각각 관품별로 별도의 반열(班列)이 있었는데, 높은 관품의 반열이 앞줄이었고, 낮은 관품은 뒷줄이었다. 같은 반열 내에서의 서열은 동·서반 모두 가운데 길에 가까울수록 높았다. 동쪽은 양(陽)을 의미하므로 우위에 있는 동반을 배치한 것이고, 반열 및 반열 내에서의 서열은 국왕과의 거리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이런 배치는 유교의 일반 원칙에 따른 것으로 조선 시대 내내 고정된 것이었다.

또한 조선은 조의 절차를 조정하여 국왕을 유교적 군주로 부각시키고자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상적 형식과 현실적 편의성 사이의 적절한 절충점을 찾기 위해 고심했다. 천명(天命)을 받은 유교적 군주는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북극성과 같은 존재여야 했다. 조의에서 이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국왕은 움직이지 않고, 관원이 국왕을 찾아가서 뵙고 나오는 형식을 갖춰야 했다. 태조 때는 전체 관원이 입장하여 예를 행하고 퇴장하는 과정까지 국왕이 지켜보는 형태였다. 이는 유교적 군주상을 잘 반영한 형식이었으나, 고려 이래의 관행인 승려의 범패(梵唄) 연주와 아라비아 사람의 축송 순서가 있는 등 비유교적인 절차도 포함하고 있었다. 태종 때는 관원이 모두 입장한 상태에서 국왕이 입장하고, 행례 절차가 끝난 후에는 국왕이 먼저 퇴장했는데, 이는 국왕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한 것이었다.

세종 13년 정월 초하루에 진행된 ㉠정삭조하의(正朔朝賀儀)부터 조의는 조선적인 면모를 갖추게 됐다. 관원이 나뉘어 입장했던 당(唐)의 의식을 참조하여, 유교적 군주상을 드러내면서 번거로운 절차를 줄였다. 종전과는 달리 3품 이하 관원이 미리 입장하고, 이어 국왕이 어좌에 앉고, 마지막으로 2품 이상의 관원이 입장한 후, 전체 관원이 함께 행례했다. 국왕은 2품 이상 관원의 퇴장을 지켜봤고, 이들의 퇴장과 동시에 행례의 종료를 의미하는 예필(禮畢)이 선언됐다. 이것은 2품 이상의 입·퇴장으로 전체 관원의 입·퇴장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려는 의도였다. 이런 구성은 2품 이상의 관원에게 전체 관원을 대표하는 행례 역할을 담당하게 한 것으로, 여타 관원과 구분되는 2품 이상 재상급 관원의 특별한 지위를 반영한 것이기도 했다.

왕세자의 행례 절차도 이때 함께 정비했다. 왕세자가 일반 관원을 이끌고 행례할지는 논란이었다. 3품 이하 관원이 있는 상태에서 왕세자가 자신의 관속을 이끌고 입장하여 행례하고 퇴장한 후, 2품 이상의 관원이 입장하여 전체 관원이 행례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또한 승려나 아라비아계가 담당했던 비유교적 요소도 배제했고, 일본인과 여진인 자리도 고정시켰다. 일본인은 동쪽, 여진인은 서쪽으로 했는데, 각각 조선에서 인정한 관품에 따라 해당되는 문무 관원의 반열 안에 가장 서열이 낮은 자리가 배정됐다. 동북아시아를 포괄하는 조선적 질서를 규정한 것이다.

수정된 틀 위에서 다양한 절차가 구성됐다. 단순한 의식에서는 네 번 절하는 사배(四拜)만 있었지만, 정삭조하의에서는 여러 절차가 추가됐다. 의례 공간에는 국왕을 나타내는 다양한 의장물이 배치됐고, 국왕의 임재(臨在)는 제후를 상징하는 홍·청색 의장으로 표시됐다. 사배에 이어, 축하 인사와 이마를 땅에 대는 고두(叩頭), 천세(千歲)를 외치는 산호(山呼) 등이 행해졌다.

세종 13년의 의식은 『세종실록』의 '오례' 조의에서 부분적으로 수정됐다. 이 조의에서는 예필이 선언된 후, 관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국왕이 먼저 퇴장했다. 이러한 방식은 황제권이 극대화된 명(明)의 제도를 수용한 것으로, 국왕의 편의가 더 고려된 형태로 조정된 것이었다. 이런 수정을 거친 후, 세종 13년의 의식은 성종 때 간행된 『국조오례의』에서 정형화된 의식으로 자리 잡고, 이후 그대로 시행됐다.

7. 입·퇴장 절차를 기준으로 조의의 특성을 비교한 것으로 옳은 것은?

① 태조 때 조의는 『국조오례의』 조의보다 국왕의 편의성이 더 고려됐다.
② 태종 때 조의는 『세종실록』 '오례' 조의보다 유교적 군주상이 더 고려됐다.
③ 세종 13년 정삭조하의는 태종 때 조의보다 국왕의 편의성이 더 고려됐다.
④ 『세종실록』 '오례' 조의는 『국조오례의』 조의보다 유교적 군주상이 더 고려됐다.
⑤ 『국조오례의』 조의는 세종 13년 정삭조하의보다 국왕의 편의성이 더 고려됐다.

8.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왕의 지위를 드러내기 위해 시각적 요소를 이용했다.
② 국왕의 행사장 퇴장 여부를 기준으로 예필의 시점을 정했다.
③ 동·서반 반열 중 가운데 길에 인접한 자리에 외국인을 배정했다.
④ 중국 의례 형식과 비유교적 의례 전통을 종합하여 의식을 구성했다.
⑤ 왕세자가 전체 관원을 대표하여 행례함으로써 특별한 지위를 드러냈다.

9. 위 글에서 <보기>의 ⓐ의 예를 찾은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유교적 통치는 상징을 반영한 의례의 구성을 통해 드러났고, 의례는 상호 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참석자를 현존하는 질서 내로 통합하는 기능을 수행했다. 의례의 현장은 특정 질서 체제 내에서의 우열 관계를 반영하여 ⓐ 사회적 차등화를 하나의 공간에 담아내는 기능을 했다.

① 국왕 자리의 북쪽 배치
② 음양에 따른 반열 배정
③ 관품에 따른 행례 구분
④ 범패 연주 절차의 수용
⑤ 사배·고두·산호 시행

[10~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언론의 객관성에 대한 논의에서 객관성은 ㉠ '참된 객관성', ㉡ '합의된 객관성', ㉢ '수용된 객관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참된 객관성은 인간의 주관적 해석이 완전히 배제된 객관성이다. 어떤 관찰 대상이라도 인간의 오감으로는 완전하게 파악할 수 없으므로 참된 객관성에는 도달할 수 없다. 참된 객관성은 절대적이고 이상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언론에서 참된 객관성이 구현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합의된 객관성은 취재·보도의 절차 및 형식과 관련된다. 언론인들은 관례적으로 합의된 절차와 형식에 맞추어 취재와 보도를 하는데, 이때 보도가 갖는 객관성을 합의된 객관성이라고 한다. 가령, 일반적으로 뉴스 기사는 편견이 개입될 여지를 배제하기 위한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작성되고, 육하원칙과 같은 특정 형식을 통해 전달되므로 합의된 객관성을 구현하고 있는 것이다. 수용된 객관성은 실재와의 조응 정도를 의미한다. 언론 보도의 객관성의 근거는 그 보도가 실재하는 현실, 즉 실제의 사건을 얼마나 잘 전달하느냐이다. 즉, 객관성의 검증은 이미 합의된 절차나 형식에 달린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그대로의 실재를 얼마나 정확하게 재현해 내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인데, 언론이 하나의 사건을 현실 그대로 재현했다면 그 기사는 수용된 객관성이 구현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그 현실 반영 정도를 독자들도 받아들인다면, 그 역시 수용된 객관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언론의 객관성 문제는 실제 취재·보도 과정 중 발생하는 '사실과 의견의 구분' 문제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이러한 구분은 검증이 가능한 사실과, 주관적 판단이나 가치를 포함하고 있는 의견을 구분하면 기사의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에 근거한다. 그러나 실제 언론의 보도에서는 특정 경향성을 나타내어 객관성을 상실하는 경우가 흔히 나타난다. 우선 사실의 선택부터가 경향성을 지니는 경우가 있다. 복잡한 사실들로 구성된 사건 중 일부의 취재원과 인용문을 선택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전체 중 일부 사실만 강조하는 것이다. 윤색적 표현을 포함하고 있는 기사도 적지 않다. 이는 특정한 관점에 근거한 평가적 함축이 있는 표현들을 사용하는 것으로, 사건이나 대상 등에 대해 긍정적 혹은 부정적 의미의 함축된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그에 해당한다. 전제된 가치의 문제도 있다. 언론이 기사를 작성할 때 중요하다고 간주하거나 가치를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당연한 전제로 가정하는 것으로, 어느 한 가지 가치만을 기본 전제로 삼고 다른 가치는 무시한 채 사실 관계를 기술하는 것이다. 근거 없는 의견도 있다. 이는 사실적 근거가 없는 평가, 판단, 의견을 기사화하는 것이다. 일관성의 문제도 있다. 동일한 사안을 상반된 가치, 이념, 주장, 판단 등을 동원해서 편의에 따라 한 조건에서는 긍정적으로, 다른 조건에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정성의 문제가 있다. 기사를 통해 비판받거나 평가받는 당사자의 의견을 기사 내용의 구성 과정에 정당하게 반영하지 않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경향적 뉴스를 접한 독자는 언론사가 제공하는 정보와 그 해석의 틀에 영향을 받게 된다.

언론은 왜 이런 경향성을 보이는가? 자신의 경향성을 알지 못해서 그러는가? 알면서도 무능해서 대처하지 못하는 것인가?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러는 것인가? 먼저, 알지 못해서 그런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래전부터 수많은 언론학자들이 언론의 경향성에 대한 비판과 우려를 제시한 바 있고, 이에 대해 관련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언론 또한 자체적으로 제정한 윤리 강령에 이와 관련한 조항들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론이 이런 비판을 정말 모른 채, 경향적으로 보도한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언론이 경향적 보도를 하는 줄 알면서도 다른 이유로 대처하지 못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언론의 경향성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배양되어 전승되는 일종의 역사적 전통이다. 논쟁적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가치를 옹호하고 사회를 계몽하는 것이 언론의 임무라고 생각하는 전통에 따라 '알면서도' 경향성을 유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또 다른 설명도 가능하다. 언론은 전략적으로 경향성을 추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갈등적인 사회 분위기에서는, 모든 관점을 아우르도록 편집하는 것이 잠재적 독자를 확보하는 상책이 아니라 충성스러운 독자를 저버리는 하책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특정한 독자층을 유지하고, 광고 수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경향성을 유지하려 한다는 것이다.

언론인은 객관성 구현에 대해 회의적이면서도 언론 현장에서는 객관성의 이념을 완전히 유기하지는 않는다. 언론은 사실과 의견의 구분을, 보도가 객관적인 것처럼 전달하는 수단이자 언론의 주관적 판단을 드러내지 않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10. 위 글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은?

① 사실과 의견의 구분은 취재 보도 기준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였다.
② 사실과 의견의 구분은 기사의 보도 내용을 이해하는 데 영향을 끼친다.
③ 기사의 경향성은 언론의 계몽적 기능을 강조하는 전통과 관계가 있다.
④ 언론의 경향성은 사실과 의견의 구분에 대한 언론의 무지에 기인한 것은 아니다.
⑤ 언론은 사실과 의견의 구분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보도가 객관성이 있는 것처럼 드러낸다.

11.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은 현실적으로 구현될 수 없다.
② ㉡은 보도의 관례적 절차를 따르면 성취될 수 있다.
③ ㉡은 보도 과정의 형식보다 보도된 내용을 중시한다.
④ ㉢은 언론과 독자 모두에게 인정될 수 있다.
⑤ ㉢은 실재하는 현실에 조응하도록 사건을 전달하면 얻을 수 있다.

12. <보기>의 기사에 대한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의혹 폭로전, TV 토론에서 후보 간 혈투

사실로 드러날 경우 판세 뒤집힐 수도

여론 조사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김OO 후보와 이OO 후보가 TV 토론에서 폭로전을 벌였다. A 방송국이 주최한 오늘 토론에서 ⓑ 이 후보는 김 후보의 돈 선거 의혹을, 김 후보는 이 후보의 사전 선거 운동 의혹을 제기했다. ⓒ 이 후보는 "김 후보의 사무장이 선거 운동원에게 거액의 돈 봉투를 건네는 장면이 찍힌 사진을 확보했다."라며 김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 토론을 시청한 박OO 씨는 "돈 선거 후보가 당선돼서는 안 된다."라며 김 후보를 비판했다. 선거일까지 두 차례의 TV 토론이 더 진행될 예정이다. ⓔ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정책 대결을 펼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① ⓐ는 혈투라는 과격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윤색적 표현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② ⓑ는 돈 선거, 사전 선거 운동 등의 제기된 의혹들을 기사화함으로써 일관성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③ ⓒ는 김 후보의 입장은 포함하지 않고 이 후보의 입장만을 제시함으로써 공정성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④ ⓓ는 일부 취재원의 발언만을 인용함으로써 사실의 선택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⑤ ⓔ는 정책 대결을 하면 투표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확인할 수 없는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근거 없는 의견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13~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8세기 영국의 사상가 버크는 프랑스 혁명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국민 대중에 대하여 회의를 갖게 되었다. 일반 국민이란 무지하고 교육을 받지 못한 다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다지 신뢰할 만하지 않다는 이유에서이다. 그래서 그는 계약에 의해 선출된 능력 있는 대표자가 국민을 대신하여 지도자로서 국가를 운영케 하는 방식의 대의제를 생각해 냈다. 재산이 풍족하여 교육을 충분히 받아 사리에 밝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다수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편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가 말하는 대의제란 지도자가 성숙한 판단과 계몽된 의식을 가지고 국민을 대신하여 일하는 것을 요체로 한다. 여기서 대의제의 본질은 국민을 '대표'하기보다 국민을 '대신'한다는 의미에 가깝다. 즉 버크는 대중이 그들 자신을 위한 유·불리의 이해관계를 알지 못한다는 가정을 전제로, 분별력 있는 지도자가 독립적 판단을 통해 국가를 이끌어 가야 한다고 했던 것이다. 버크에 따르면 국민은 지도자와 상호 '신의 계약'을 체결했다기보다는 '신탁 계약'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도자에게는 개별 국민들의 요구와 입장을 성실하게 경청해야 할 의무 대신에, 국민 전체의 이익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판단해서 대신할 의무가 있다. 그는 만약 지도자가 국민의 의견을 좇아 자신의 판단을 단념한다면, 그것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했다.

18세기 영국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활동했던 페인은 국민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에 주목했다. 그는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타고났으므로, ㉠ 사회적인 차별은 공공의 이익을 근거로 해서만 있을 수 있다는 주장에 적극 동의했다. 또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자연적이고 소멸될 수 없는 인간의 권리를 보존하는 것이기에 권리의 보장을 위해 국가에 대한 납세 의무를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하면서도, 자유권, 재산권, 안전권, 압제에 대한 저항권을 포함하는 당시로선 다소 급진적으로 여겨지는 권리 개념까지도 수용하였다. 이런 전제 아래, 페인은 국가란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 각자 주권을 갖고 지도자와 상호 계약을 체결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국가 통치를 지도자에게 일방적으로 위임하는 것으로는 권리 보호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므로 국가나 국가의 지도자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최고의 의무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그는 공정한 국가나 국가의 지도자란 공히 어떤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것이 헌법을 만드는 데에도 반드시 명문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원칙의 핵심은 소멸될 수 없고 양도될 수도 없는 신성한 인간 권리의 수호이다.

20세기에 들어와서, 영국의 철학자 러셀은 국민 개개인의 절대적 권리보다는 탁월한 지도자를 선택하는 계약 당사자로서의 국민의 자질을 강조하였다. 즉 아무리 국민이 민주적이며 자발적으로 지도자를 선택해서 선출한다고 해도, 지도자가 명령을 내리고 일반 국민이 이에 따르는 한에서는, 권력 관계의 평등이라는 민주주의의 이상은 현실적으로 훼손이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이런 한계 속에서 민주주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의 적절한 자질이 중요하다고 러셀은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일단 선택된 지도자의 결정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는 태도나, 반대로 소수의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극단적으로 반대하는 태도 모두를 지양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지도자를 선택한 이후에도 모든 것을 지도자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다수결을 통해 지도자의 결정에 대한 수용과 비판의 지속적인 태도를 보여 주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지도자나 국민 모두 회의주의나 극단주의에 경도되는 것을 경계해야 민주 국가에서 지도자와 국민의 바람직한 관계가 가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13. 버크, 페인, 러셀의 공통된 견해에 해당하는 것은?

① 다수결의 원칙은 신성불가침한 것이다.
② 국민과 지도자의 관계는 계약 관계이다.
③ 지도자는 국민 다수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④ 국민은 존엄성을 지닌 신뢰할 만한 존재이다.
⑤ 국민은 지도자에게 자신의 모든 권리를 위임한다.

14. 위 글에서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버크가 말하는 지도자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② 버크는 국민의 자질이나 역할보다 지도자의 능력을 더 중시했다.
③ 페인에 따르면 국민은 권리 보장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인정해야 한다.
④ 페인은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지도자의 최우선 과제라고 본다.
⑤ 러셀에 따르면 민주적 선거는 국민과 지도자 간 권력 관계의 평등을 보장한다.

15. ㉠의 사례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특정 시간대에 고속도로 전용 차선제를 실시하여 진입이 허용된 차량 이외의 차량의 진입을 제한한다.
② 전염성 질환이 발생함에 따라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감염자 발생 지역 주민의 출입을 제한한다.
③ 성범죄 전과자 중 재범의 우려가 있는 사람에 한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전자 발찌를 강제로 착용하게 한다.
④ 아파트 단지의 주민들이 주민 전체의 안전을 위해 외부인들의 단지 내 관통 도로의 차량 통행을 제한한다.
⑤ 도시의 무질서한 확장을 막고 자연환경을 보전함으로써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정 지역에 한해 개발을 제한한다.

[16~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고체는 원자들이 서로 상대적으로 고정된 위치에 배치되어 있는 입체적 구조물인데, 원자의 배열이 규칙적인 결정질과 불규칙적인 비결정질로 구분된다. 고체의 여러 물리적 성질은 고체 내의 전자가 가지는 파동성에 의해 설명된다. 전자의 파동은 변위라는 복소수로 표현되는데, 변위는 크기와 위상의 곱으로 주어진다. 임의의 위치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은 변위 크기의 제곱으로 주어지며, 시간과 공간의 함수인 위상은 전자의 파동성을 나타낸다. 파동의 일부 또는 전부가 일정 영역에 갇혀 진행에 방해를 받는 현상을 국소화(localization)라 하는데, 국소화에는 앤더슨 국소화, 약한 국소화, 동역학적 국소화의 세 가지가 있다. 앤더슨 국소화와 약한 국소화는 비결정질 고체 내에서 일어나고, 동역학적 국소화는 비결정질과 상관없이 혼돈계에서 일어난다.

앤더슨 국소화란 파동이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일정한 공간 안에 완전히 갇히는 현상을 말한다. 비결정질의 경우 임의의 위치에서 출발한 전자 파동이 다른 임의의 위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불규칙하게 배열된 수많은 원자들과 충돌할 수밖에 없으므로, 전자의 이동 경로가 무수히 존재하게 된다. 각 경로들이 갖는 위상들은 부호(+/−)가 다른 무작위 값을 가지는데, 이 경우 각 경로들에 대응되는 변위를 모두 합하면 그 크기가 0에 가까워진다. 이는 임의의 위치에서 출발한 전자를 다른 임의의 위치에서 발견할 확률이 0에 가까워진다는 뜻이므로, 전자 파동이 멀리 진행할 수 없고 공간적으로 완전히 갇혀 국소화됨을 의미한다. 이때 파동이 갇힌 공간적 영역의 크기를 '국소화 길이'라 하는데, 국소화 길이가 짧을수록 국소화가 강해진다.

앤더슨 국소화가 일어나려면 우선 파동의 위상이 시간과 공간의 함수로 잘 정의되어야 한다. 이러한 위상을 갖는 파동을 결맞은 파동이라 하는데, 결맞음의 정도를 '결맞음 길이'라는 양으로 표현한다. 결맞음 길이가 국소화 길이보다 길어야 국소화가 일어난다. 온도가 높아지면 전자들 사이의 상호 작용과 원자들의 요동이 커져 결맞음이 어긋나면서 결맞음 길이가 0으로 접근한다. 또한 앤더슨 국소화는 차원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인다. 1차원의 경우 장애물이 있다면 되돌아가지 않고 피해 갈 방법은 없다. 하지만 차원이 높아지면 장애물을 피해 가기 쉬워진다. 따라서 비결정질이 1차원인 형태에서는 전자가 국소화되어 부도체가 되지만, 3차원에서는 조건에 따라 전자의 상태가 국소화되지 않아 도체가 될 수도 있다.

약한 국소화는 파동이 폐곡선 경로에 약하게 갇혀 진행에 방해를 받는 현상을 말한다. 약한 국소화는 도체/부도체의 특성 자체를 결정하지 못하지만, 자기장의 유무에 따른 전기 저항의 차이를 설명한다. 비결정질 내부의 임의의 점에서 출발하여 전파되는 파동의 수많은 경로들 중에는 폐곡선 형태를 갖는 것들이 있다. 폐곡선에서는 전자가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이 둘 다 가능하다. 이 두 경로는 동일한 곡선상에 위치하여 길이가 같으므로 두 경로를 지나 출발점으로 돌아온 파동의 위상이 같아지고, 이에 따라 전자의 파동이 중첩되어 변위가 커진다. 변위 크기의 제곱은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므로, 변위의 크기가 커진다는 것은 전자가 출발점으로 되돌아오기 쉬워져 이동이 방해됨을 뜻한다. 따라서 방해가 없는 경우에 비해 전기 저항이 커진다. 하지만 자기장 안에서는 두 방향으로 도는 파동의 위상에 변동이 생겨 약한 국소화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끝으로, 동역학적 국소화는 혼돈계에서 일어나는 파동의 국소화를 말한다. 혼돈이란 미세한 초기 조건의 차이가 결과에 엄청난 차이를 일으키는 현상을 말하는데, 혼돈계에서는 모든 입자가 복잡한 운동을 하며 확산해 간다. 반면 파동은 혼돈계에서 확산되지 않고 완전히 갇혀 국소화된다. 왜냐하면 어떤 파동이 혼돈계 내에서 복잡하게 진행하는 것은, 파동이 비결정질에서 불규칙하게 배열된 수많은 원자 사이를 지나가는 앤더슨 국소화의 경우와 유사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16. 앤더슨 국소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국소화 길이가 결맞음 길이보다 길면 일어난다.
② 무수히 많은 경로들이 갖는 무작위적 위상 때문에 생긴다.
③ 전자들 사이의 상호 작용의 크기에 따라 결맞음 길이가 변한다.
④ 차원에 따라 비결정질이 도체가 될 수도 있는 현상을 설명한다.
⑤ 전자가 비결정질의 한 점에서 다른 점으로 이동할 확률로써 판별된다.

17. 국소화들 사이의 공통점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동역학적 국소화와 약한 국소화는 폐곡선 경로 때문에 생긴다.
② 앤더슨 국소화와 동역학적 국소화는 파동이 완전히 갇히는 현상이다.
③ 앤더슨 국소화와 약한 국소화는 비결정질이 도체인지 부도체인지를 결정한다.
④ 약한 국소화와 동역학적 국소화는 앤더슨 국소화의 개념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⑤ 앤더슨 국소화와 동역학적 국소화는 고체를 이루는 원자 배열의 불규칙성 때문에 생긴다.

18. 위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기>의 A, B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 기>

○ 약한 국소화가 일어난 비결정질 시료에 자기장을 가하고 자기장을 가하기 전의 전기 저항과 비교해 보면, 전기 저항은 (A).
○ 앤더슨 국소화가 일어난 비결정질에서 국소화가 사라지도록 하려면 온도를 (B).

A	B
① 커진다	높인다
② 커진다	낮춘다
③ 작아진다	높인다
④ 작아진다	낮춘다
⑤ 변화가 없다	그대로 유지한다

[19~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생식 기능은 호르몬들의 작용으로 조절된다. 남녀 모두, 시상하부에서 분비된 호르몬의 자극으로 두 종류의 생식샘 자극 호르몬, 곧 황체 형성 호르몬과 난포 자극 호르몬이 뇌하수체에서 분비된다. 그런데 남성의 경우, 황체 형성 호르몬은 고환 내 간질 세포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남성 호르몬 합성을 촉진한다. 간질 세포에서 합성된 남성 호르몬은 혈액이나 고환 내 세르톨리 세포로 이동한다. 남성 호르몬과 난포 자극 호르몬이 세르톨리 세포에 함께 작용하여 정조 세포를 정자가 되게 한다. 또한 남성 호르몬은 부고환에 작용하여 고환에서 만들어진 정자를 성숙시켜 수정을 위해 필요한 활동성을 갖도록 한다.

여성의 경우, 황체 형성 호르몬이 난소의 난포막 세포에 작용하여 남성 호르몬의 합성을 증가시킨다. 합성된 남성 호르몬은 혈액이나 난소의 과립 세포로 이동한다. 한편 난포 자극 호르몬은 과립 세포에 작용하여 과립 세포 내 아로마타제 효소가 난포막 세포에서 이동한 남성 호르몬을 여성 호르몬으로 바꾸는 데 영향을 준다. 여성 호르몬은 과립 세포로 둘러싸여 있는 난포 세포를 성숙시켜 난자로 만들고 배란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자궁에 작용하여 임신에 대비한 기본 환경을 갖추도록 한다.

생식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혈중 성호르몬의 농도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남성의 경우는 고환에서 합성된 남성 호르몬이, 여성의 경우는 난소에서 합성된 여성 호르몬이 시상하부와 뇌하수체에 영향을 준다. 이 영향으로 시상하부에서 생식샘 자극 호르몬의 분비를 조절하는 호르몬의 분비가 조절되고, 이것은 다시 뇌하수체에서 생식샘 자극 호르몬의 분비를 조절하는 데 영향을 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혈중의 성호르몬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러나 비만이 진행되면서 지방 세포로 인해 각종 호르몬의 균형 상태가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데, 특히 성호르몬의 변화가 두드러진다. 비만으로 인해 성호르몬의 균형이 깨지면 생식 기능의 저하가 나타난다.

비만은 체지방의 비율이 증가되는 현상인데, 남녀 모두 비만해지면 지방 세포의 작용으로 여성 호르몬의 혈중 농도가 높아진다. 왜냐하면 혈액에서 지방 세포 내로 유입된 남성 호르몬은 지방 세포 내에 있는 아로마타제 효소에 의해 여성 호르몬으로 변하게 되는데, 지방 세포의 크기가 커지거나 수가 늘어나서 비만해지면 지방 세포 내 아로마타제 효소의 작용이 그에 비례하여 커지기 때문이다. 다만 비만 여성에서는 지방 세포가 여성 호르몬을 흡수·저장도 하기 때문에 높아졌던 혈중 여성 호르몬 농도가 다시 낮아지므로 사실상 거의 변화가 없게 된다.

한편 비만 남성에서는 혈중 여성 호르몬 농도가 높아짐으로 인해 뇌하수체의 생식샘 자극 호르몬 분비가 억제된다. 비만 여성의 경우, 혈중 여성 호르몬은 뇌하수체를 자극해서 황체 형성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는데, 이것은 난소 내에서 남성 호르몬의 합성을 증가시킨다. 또한 혈중 여성 호르몬은 뇌하수체에서 난포 자극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한다. 결국 비만으로 인해 난소 내 남성 호르몬의 농도가 높아지고 과립 세포 내 아로마타제 효소의 양이 감소하게 되어 성호르몬의 균형에 변화가 일어나고, 이에 따라 난자 성숙 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처럼 난소 내 성호르몬의 농도가 변화하게 되면, 미성숙 난자만 존재하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다. 이 증후군은 배란율 감소와 불규칙한 월경을 동반하고 심한 경우 불임을 야기한다.

19. 위 글의 내용에 부합하지 <u>않는</u> 것은?

① 남성 호르몬은 정자가 활동성을 갖도록 한다.
② 아로마타제는 남성 호르몬의 합성에 필요하다.
③ 뇌하수체는 혈중 여성 호르몬 농도를 조절한다.
④ 남성 호르몬은 고환과 난소 모두에서 합성된다.
⑤ 황체 형성 호르몬은 간질 세포의 기능을 조절한다.

20. 비만에 의해 일어나는 변화를 <u>잘못</u> 설명한 것은?

① 남녀 모두, 지방 세포에서 남성 호르몬의 합성은 증가한다.
② 남성의 경우, 고환 내에서 남성 호르몬의 농도가 낮아진다.
③ 남성의 경우, 혈중의 여성 호르몬 농도 변화량은 여성보다 크다.
④ 여성의 경우, 지방 세포 내의 여성 호르몬 농도가 정상보다 더 높다.
⑤ 여성의 경우, 다낭성 난소 증후군 상태의 난소 내 여성 호르몬 농도는 정상보다 낮다.

21. 비만 여성의 생식 기능을 호전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물질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ㄱ. 여성 호르몬 기능 유사 물질
ㄴ. 아로마타제 효소 기능 억제 물질
ㄷ. 황체 형성 호르몬 분비 억제 물질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2~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의 줄거리] 남편인 '나'는 '아내'의 몸에 생긴 초록색의 피멍이 점점 그녀의 온몸으로 번져 가고 있음을 알게 된다.

아내에게 원래 눈물이 많았던가? 그렇지 않았다. 상계동 아파트에 사는 건 싫어, 라고 말하며 처음 눈물을 흘렸을 때 아내는 스물여섯 살이었다. 처녀 적의 아내는 웃음이 많았고, 목소리에도 언제나 나직한 웃음의 기운이 밝은 배경 색처럼 깔려 있었다. 동안인 데 비하여 어른스럽고 차분한 그 목소리를 처음으로 떨며 아내는 말했었다.

인구 칠십만이 모여 산다는 거기서 천천히 말라죽을 것 같아. 수백 수천 동 똑같은 건물에, 칸칸마다 똑같은 주방에, 똑같은 천장에, 똑같은 변기, 욕조, 베란다, 엘리베이터도 싫어. 공원도, 놀이터도, 상가도, 횡단보도도 다 싫어.

왜 갑자기 어린아이처럼 그래.

이야기의 내용보다는 그 목소리의 부드러움에만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나는 어린아이를 달래듯이 말했었다.

살아 보지도 않고서 왜 그런 말을 해. 사람이 많은 게 왜 싫다는 거야.

나는 약간 정색한 얼굴로 아내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선한 눈이었다.

일부러라도 나는 번화가가 가까운 곳에서만 자취방을 얻곤 했어. 인파가 득시글거리고, 시끄러운 음악이 거리를 팡팡 울리고, 혼잡하게 도로를 채운 차들이 경적을 뱉어 대는 곳으로만 옮겨 다녔어. 그러지 않고는 배겨 낼 수가 없었어.

그 선한 눈에서 거짓말 같은 눈물이 굴러 떨어졌다.

그러지 않고는 혼자서 버텨 낼 수 없었다구.

아내는 그 눈물을 손바닥으로 닦더니,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눈물을 마치 세수하듯 두 뺨에 거푸 문질렀다.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갈 것 같단 말이야. 그 십삼 층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 같단 말이야.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단 말이야.

왜 그렇게 끔찍한 소릴 해. 별나기도 하구나, 정말.

이곳 상계동 아파트에 집을 얻어 살기 시작한 첫해에 아내는 과연 자주 잔병을 앓았다. 산동네 자취방의 추위에 익숙해 있던 아내는 밀폐된 아파트의 중앙난방에 적응하지 못했다. 가파른 비탈길을 잰걸음으로 오르내리며 박봉의 출판사를 개근하느라 최대한으로 단련되어 있었던 그녀의 몸은 쉽사리 원기를 잃었다.

그러나 아내가 직장을 그만둔 것은 결혼 때문은 아니었다. 내가 구체적인 결혼 이야기를 꺼낸 것은 아내가 직장을 그만둔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때였다. 아내는 그동안 저축했던 월급과 퇴직금, 그리고 주말에 두어 건의 과외 아르바이트를 뛰어 모아 둔 돈을 죄다 털어서 이 나라를 떠날 생각을 해 오던 참이었다.

[A] 떠나서 피를 갈고 싶어, 라고 아내는 말했었다. 줄곧 가방에 넣어 가지고 다니던 사직서를 마침내 직속 상사에게 올렸다던 날 저녁이었다. 혈관 구석구석에 낭종(囊腫)처럼 뭉쳐 있는 나쁜 피를 갈아내고 싶다고, 자유로운 공기로 낡은 폐를 씻고 싶다고 아내는 말했다. 자유롭게 살다가 자유롭게 죽는 것이 어릴 적부터의 꿈이었다고, 여건이 되지 않아 줄곧 미루어만 왔지만 이제 얼마간의 돈을 모았으며 자신감도 생겼으므로 그것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다. 일단 떠나서 육 개월쯤 한 나라에 머물다가 다른 나라로 떠나고, 그곳에서 다시 몇 달을 머무르다가 또 다른 나라로 떠날 것이라고 했다.

죽기 전에 말이야, 라고 아내는 말하며 나직하게 웃었다.

그렇게 세상 끝까지 가 보고 싶어. 가장 먼 곳으로, 지구 반대편까지 쉬엄쉬엄.

그러나 세상의 끝으로 떠나는 대신 아내는 그 얼마 안 되는 자금을 이 아파트의 전세금과 결혼 비용에 털어 부었다. "아무래도 헤어질 수가 없어서"라는 짤막한 한마디로 아내는 자신의 행동을 설명했다.

아내가 꿈꿔 왔다는 자유라는 것은 얼마만큼의 실제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었을까. 그렇게 쉽사리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을 보면 그다지 대단한 것은 아니었으리라고 나는 짐작했다. 그것을 위해 그녀가 세웠던 계획이라는 것들 역시 어린아이 같은 것, 비현실적이고 낭만적인 몽상이었으리라고 나는 생각했다. 그 점을 아내가 뒤늦게 깨달은 것이며, 그 깨달음은 어쩌면 나로 인한 것이었으리라는 자부심 섞인 추측에 이르렀을 때 나는 일말의 감동을 느꼈다.

그러나 몸이 자주 아픈 탓이었겠지만, 좁은 어깨를 시든 배춧잎처럼 늘어뜨린 채 베란다 유리문에 뺨을 붙이고 서서 질주하는 차들의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는 아내를 보면 가슴이 내려앉곤 했다. 마치 누군가의 투명한 팔이 아내의 어깨를 결박하고 있는 듯이, 보이지 않는 사슬과 묵직한 철구(鐵球)가 발과 다리를 움쭉달싹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처럼, 그녀는 숨소리도 크게 내지 않은 채 거기 서 있었다.

깊은 밤과 새벽이면 한산한 도로를 과속으로 질주하는 택시며 오토바이들의 굉음에 아내는 깜짝깜짝 깨어 몸을 떨곤 했다. 차들이 아니라 도로가 달리고 있는 것 같다고, 도로와 함께 이 집도 어디론가 떠내려가고 있는 것 같다고 아내는 말했다. 굉음이 멀리 사라진 뒤에야 다시 혼곤한 잠에 빠져드는 아내의 귀염성 있는 얼굴은 산 사람 같지 않게 창백했다.

저것들, 다 어디서 왔을까.

그러던 어느 날인가, 들릴 듯 말 듯한 쉰 목소리로 아내는 꿈결처럼 물은 적이 있다.

……다들 어디로 저렇게 달려가는 거야?

(중략)

출장에서 돌아온 날 밤 내가 세 번째 대야의 물을 끼얹었을 때 아내는 노란 위액을 꾸역꾸역 토해냈다. 빠른 속도로, 내 눈앞에서 아내의 입술이 오그라붙었다. 떨리는 손으로 그 희끗희끗한 입술을 더듬어 보았을 때 나는 마지막으로 알아들을 수 없는 가냘픈 음성을 들었다. 다시는 아내의 목소리를, 신음 소리조차 듣지 못했다.

그녀의 허벅지에서 흰 잔뿌리가 무성하게 돋아 나왔다. 가슴에서는 검붉은 꽃이 피었다. 끝은 희고 아랫부분이 노르스름한 도톰한 꽃술이 유두를 뚫고 올라왔다. 치켜 올린 손에 약간이나마 힘을 줄 수 있었을 때 아내는 내 목을 끌어안고 싶어했다. 아직 어렴풋한 빛이 남아 있는 눈을 마주 보며 나는 그녀의 동백잎 같은 손이 내 목을 잘 안을 수 있도록 엉거주춤 허리를 숙이고 있었다. 괜찮아? 라고 나는 물었다. 잘 익은 포도알 같은 아내의 눈이 희미하게 웃었다.

그 가을 내내 나는 아내의 몸이 맑은 주황빛으로 물들어 가는 것을 보고 있었다. 창을 열면 아내의 뻗어 올린 두 팔은 바람의 결을 따라 조금씩, 매우 조금씩 부드럽게 흔들렸다.

가을이 끝나 갈 무렵 하나둘 잎이 지기 시작했다. 주황빛이었던

몸뚱이는 서서히 다갈색으로 변해 갔다.

아내와 마지막 잠자리를 함께한 것이 언제였을까 하고 나는 생각했다. 그때 아내의 아랫도리에서는 체액의 시큼한 냄새 대신 낯설고 향긋한 냄새가 났었다. 나는 그저 그것을 아내가 비누를 바꾸어 쓴 모양이라고, 혹은 남는 향수를 심심풀이 삼아 두어 방울 떨어뜨려 본 모양이라고만 생각했었다. 그것은 얼마나 오래전의 일이었을까.

이제 아내의 몸에는 한때 ㉠ 두 발 동물이었던 흔적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았다. 포도알같이 맺혀 있던 눈동자는 ㉡ 다갈색 줄기 속에 차츰 파묻혀 갔다. 아내는 이제 볼 수 없었다. 줄기의 끝도 까딱할 수 없었다. 그러나 베란다에 들어서면 형언할 수 없는 아련한 느낌이 아내의 몸에서 나에게로 미미한 전류처럼 흘러들어 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한때 아내의 손과 머리카락이었던 잎사귀들이 남김없이 떨어져 내리고, 입이 오그라붙었던 자리가 벌어지면서 한 움큼의 ㉢ 열매가 쏟아져 나왔을 때 그 실낱 같은 느낌은 끊어졌다.

- 한강, 내 여자의 열매 -

22. 위 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작중 화자인 '나'가 '아내'를 관찰하면서 '아내'에 대한 심정이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② '아내'의 과거와 현재 상태를 대비하여 경제적 능력을 우선시하는 현대 사회를 비판하고 있다.
③ '아내'가 '나'를 이해하고 수용하던 관계가 반전되면서 둘 사이에 극적인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④ 환상적인 몽환 체험을 삽입함으로써 '아내'의 꿈에 대한 '나'의 반감을 효과적으로 드러내 보이고 있다.
⑤ '나'는 '아내'에 대해 주관적인 판단을 배제한 채 객관적인 입장에서 서술함으로써 독자의 신뢰를 얻고 있다.

23.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은 일상생활에서의 세속적 욕망에 영향을 받던 변신 이전의 상태를 가리킨다.
② ㉡은 '아내'가 과거의 상태에서 벗어나 새로 진입하게 된 차원이나 세계를 가리킨다.
③ ㉢은 육체성과 현실적인 모든 조건을 초월한 뒤 도달하게 되는 세계를 상징한다.
④ ㉠에서 ㉡으로 변신하는 비현실적 사건을 설정함으로써 작품의 분위기가 신비화된다.
⑤ ㉡에서 ㉢으로의 변신은 이전의 상황이 마무리된 뒤 다시 새로운 불행이 싹트고 있음을 암시한다.

24. [A]에 나타난 '아내'의 심리 상태와 가장 가까운 것은?

① 눈물 아롱아롱
피리 불고 가신 님의 밟으신 길은
진달래 꽃비 오는 서역(西域) 삼만 리(三萬里).
흰 옷깃 여며 여며 가옵신 님의
다시 오진 못하는 파촉(巴蜀) 삼만 리(三萬里).

② 다만 솟구쳐 날아오르는 새가 부러워
끝 간 데 없이 뻗어나간 하늘이 부러워
바람이 부러워
포플라는 자유의 의미도 모르는 채
언제껏 손을 쳐들고
흔들고만 있다.

③ 너는 어디로 갔느냐
그 어질고 안쓰럽고 다정한 눈짓을 하고
형님!
부르는 목소리는 들리는데
내 목소리는 미치지 못하는
다만 여기는
열매가 떨어지면
툭 하고 소리가 들리는 세상

④ 풀이 눕는다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껴
풀은 눕고
드디어 울었다
날이 흐려서 더 울다가
다시 누웠다
풀이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⑤ 언제야 돌아오리란
언제야 웃음으로 화안히
꽃피어 돌아오리란
댕기 풀 안쓰러운 약속도 없이
간다
울지 마라 간다
모질고 모진 세상에 살아도
분꽃이 잊힐까 밀 냄새가 잊힐까
사뭇사뭇 못 잊을 것을
꿈꾸다 눈물 젖어 돌아올 것을
밤이면 별빛 따라 돌아올 것을

[25~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균일도란 서로 화학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여러 성분의 분말들이 혼합되어 복합 화학제품이 만들어질 때, 제품 사이에서 각 성분 함량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특히 많은 양의 원료를 혼합한 뒤 그것을 일정한 질량으로 나누어 최종 판매 제품으로 만드는 대량 생산 방식에 있어서 균일도는 제품의 품질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균일도는 원료 혼합 공정의 전 과정에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나중에는 해결하기 어렵다. 그래서 원료 분말을 최종 함량 비율 기준에 정확하게 맞추어 교반기에 넣어야 하고, 교반 중에는 분말의 균일도를 반복적으로 분석하여 성분 함량 비율이 기준에 일치하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다종의 분말들을 섞는 혼합 공정에서 혼합 균일도는 교반기를 잠시 멈추고, 동일한 질량을 가지는 일정한 수의 검체를 채취해 분석하여, 각 검체별로 각 성분들의 함량비를 얻고 이로부터 각 성분 함량비의 분산 값을 구하는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이 분산 값이 작을수록 균일도가 높다고 본다. 교반기를 적절한 시간 간격으로 정지시켜 이와 같은 일을 반복하면, 교반 진행 시간에 따른 분산 값의 추이는 모두 하강하는 곡선으로 나타나고 최종적으로는 일정 수준에 수렴하게 된다. 이 시점이 되면 더 이상 교반하는 것이 의미가 없으므로 이 분산 값이 미리 정한 기준에 도달되는 것이 확인될 때 혼합 공정을 종료하면 된다.

균일도를 정확히 점검하기 위해서는 통계적 기준을 고려하여 검체의 개수와 검체 하나당 질량, 검체의 채취 위치 등을 정해야 한다. 검체 개수는 분산에 영향을 준다. 검체 개수가 너무 적으면 분산 값 추정에 오류가 많아진다. 또 검체 하나당 질량은 최종 제품 하나당 질량을 기준으로 삼아 그 채취의 상한선이 정해져야 한다. 한편 검체의 채취 위치는 '무작위 선택'의 방법을 사용하여 선정한다. 즉 교반기 내 분말 전체를 대상으로 검체를 수평 및 수직 방향 모두에서 무작위적으로 고르게 채취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 고전적인 방법은 교반 도중에 화학 분석을 위해 교반기를 반복적으로 대기하게 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가 있다. 화학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별 검체들을 분석에 적합한 용액으로 만드는 검체 '전(前)처리' 과정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성분 함량의 검출을 위해 시약 반응을 이용하는 화학 분석법 자체가 긴 시간을 요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공정 총시간을 절약하려고 분석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교반기를 다시 가동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렇게 하면 분석으로 얻게 되는 정보가 교반기 안의 현 상태를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단순히 많이 교반한다고 잘 섞이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한편 균일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분말의 물성이 균일도에 주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모든 측면에서 물성이 같은 분말들은 오래 교반하는 것만으로도 잘 섞이지만, 물성에 차이가 있는 경우, 교반 과정에서 물성이 서로 비슷한 것끼리 모이는 구역들이 생겨나는 ⓐ '분체 분리 현상'이 일어나 혼합 균일도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분체 분리를 가져오는 물성으로는 분말 입자의 크기, 밀도, 입체적 형태, 표면 부착성 등이 있다. 그런데 분말의 입자 크기와 같은 물성은 사전에 고르게 되도록 조절이 가능하지만, 밀도나 형태와 같은 물성은 실질적인 조절이 불가능하다.

균일도 점검과 관련하여 최근에는 ㉡ 분광기를 사용하는 방법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이것은 교반기를 작동하는 중에도 교반기 최적 위치상의 투명창에 부착된 분광기를 통해 얻은 자료를 컴퓨터로 실시간 전송하여 분석하는 방법이다. 가동되고 있는 교반기 내부에서 섞이고 있는 분말 전체가 투명창 앞을 지나가면, 특정 시점에 투명창 앞을 지나는 분말의 일정 영역이 분광기가 보낸 빛에 노출된다. 이때 분말에 반사되어 분광기에 다시 도달하는 빛으로부터 분말의 성분 함량과 연관된 몇 종류 색의 빛의 세기 값을 얻게 된다. 각 빛의 세기와 성분 함량 사이의 관계식을 이용하면 그 값은 분광기가 관측한 영역에서의 각 성분의 함량비 값으로 변환된다. 분광기를 통해 거의 연속적으로 얻을 수 있는 함량비 값을 순차적으로 정해진 개수끼리 묶어 분산을 구한다. 이 분산 값이 미리 정한 기준에 이르면 분말이 잘 섞였다고 판단하여 혼합 공정을 종료한다.

25. 균일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원료 혼합 공정에서 확인되어야 한다.
② 복합 화학제품의 품질을 좌우하는 주요 기준이다.
③ 복합 화학제품에 포함된 주요 성분의 함량비이다.
④ 통계적 방법에 의해 얻어진 분산 값으로 측정한다.
⑤ 기대한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혼합 공정을 종료한다.

26. ⓐ를 줄이기 위한 방법은?

① 교반 대기 시간을 줄인다.
② 검체 하나의 질량을 늘린다.
③ 분광기의 자료 전송 간격을 늘린다.
④ 검체 채취 위치가 고르게 분포되도록 한다.
⑤ 원료의 조절 가능한 물성을 서로 비슷하게 한다.

27. ㉠과 ㉡을 대비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①	채취된 검체	빛에 노출된 분말
②	검체의 개수	색의 종류
③	검체 하나당 질량	빛에 노출된 분말의 영역 크기
④	분석에 사용한 시약	분광기가 보낸 빛
⑤	시약의 반응량 측정	분말에 반사되어 돌아온 빛의 세기 측정

[28~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모든 건축물은 주거나 근무, 공연 등 삶에 필요한 기능을 가지며, 그러한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구조로 지어진다. 그러나 이로써 건축의 본질이 다 설명된 것은 아닌데, 그것은 건축이 아름다움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아름다움은 건축물에 부가된 장식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건축을 구상할 때부터 추구되는 본질적 성격이다. 하지만 실용적 기능을 다하면서도 아름다운 건축물을 만드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오히려 실용성과 아름다움 중 어느 하나를 희생해야 할 위기가 건축가에게 끊임없이 닥친다. 이 위기를 극복하고 둘을 조화시키는 것이 건축가의 과제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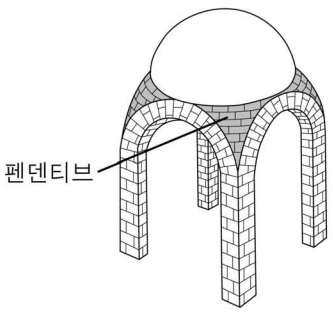
건축의 목적이 공간의 창조에 있다면, 실용성과 아름다움은 공간에서 표현되어야 한다. 공간의 창조는 '에워쌈'의 행위에서 출발한다. 에워쌈이란 상하와 전후좌우의 경계를 지어서 사람들의 삶이 담기는 공간을 만드는 행위이다. 삶과 관련된 에워쌈이 없이 공간을 만드는 것은 건축이 아니라 조각이라는 점에서, 에워쌈은 건축의 근본적 출발점이자 최종 목표가 된다. 이때 에워싸진 공간을 외부와 구획하는 경계는 물리적 차원뿐만 아니라 심리적 차원에서도 결정된다. 가령 벽체 없이 기둥만 있어도 에워싸진 공간을 만들 수 있다. 또 경계 지어졌다고 해서 외부와 완전히 차단되는 것은 아니다. 에워싸진 공간은 외부와 소통할 가능성이 열려 있어야 한다.

그런데 에워쌈은 처음 건축가가 구상할 때는 아직 상상의 영역에 있다. 예를 들어 건축가가 공항 터미널을 짓고자 할 때를 생각해 보자. 그는 비행기와 새의 공통점에 착안하여 새 모양을 닮았으면서도 공항의 기능을 하는 에워싸진 공간을 상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상상의 공간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방법이 필요하다. 그 공간이 형태를 유지할 방법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한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공간을 유지할 구조물을 '세운다'는 데 핵심이 있다. 곧 '세움'은 공간 창조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실질적 작업인 것이다.

그러나 세움은 장승이나 비석을 세우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입체적으로 에워싸진 공간을 만들려면, 여러 부분으로 구성된 복합체를 세워야 한다. 이 복합체는 아래 부분을 에워싸게 지면에 세우는 기단부, 전후좌우로 에워싸게 세우는 본체부, 공간의 윗부분을 에워싸게 세우는 상단부 등 세 부분으로 분절된다. 이 세 부분이 하나의 구조물로 통합되면서 그 안에 공간이 창조되는 것이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에워쌈과 세움의 관계이다. 개념적으로 에워쌈은 세움에 선행하지만, 실제 건축 과정에서 두 행위는 동시적으로 수행된다. 세우는 과정에서 공간이 저절로 에워싸지게 되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두 행위는 갈등과 긴장 관계에 놓이게 된다. 세우기 위해 상상의 에워싸진 공간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고, 반대로 상상의 에워싸진 공간을 위해 기존의 세우는 방법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갈등과 긴장은 비잔틴 건축에서 볼 수 있다. 천국을 상징하는 천구 모양의 돔(dome)은 원래 원통형 벽을 쌓고 그 위에 반원구형으로 천장을 쌓는 식으로 지어졌다. 그러나 당시 건축가들은 윗면이 정사각형인 육면체 공간 위에 반원구 모양을 얹은, 그래서 바닥에서 올려다 보면 둥근 천장이 바로 보이는 공간을 상상했다. 모든 회중이 일정한 방향으로 제단 쪽을 바라보는 형태의 제의 공간을 구현하려면, 중앙의 제단을 향해 참석자들이 빙 둘러서야 하는 원통형 공간보다는 참석자들 모두가 한쪽 면에 있는 제단을 향할 수 있는 육면체 공간이 훨씬 적절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원구형 천장과 육면체형 본체가 연결된 건축물을 실제로 구현해 내는 것은 상상만큼 쉽지 않았다. 여러 시행착오 끝에 마침내 그들은 ㉠ 펜덴티브(pendentive)라는 삼각형 구면부(球面部)를 고안하여 육면체 공간 위에 돔을 얹는 난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에워쌈과 세움의 갈등이 해소되어 아름답고도 실용적인 건축물이 지어졌던 것이다.



28. 위 글의 내용에 부합하는 것은?

① 에워쌈은 세움의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계기가 된다.
② 건축은 아름다움보다 실용성을 추구하는 구조물로 이해해야 한다.
③ 건축은 삶을 담는 에워쌈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조각과는 다르다.
④ 건축은 에워싸진 공간을 밀폐하여 외부와의 경계를 명확히 짓는다.
⑤ 실제 건축 과정에서 공간 창조를 위한 에워쌈은 세움에 선행한다.

29. ㉠의 출현 과정에서 반영되었을 사항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천구를 본뜬 반원구 모양의 상단부 양식은 유지되어야 한다.
② 상단부와 본체부 사이의 공간을 트인 모양으로 연결해야 한다.
③ 성직자와 신도가 위치하는 기단부는 사각형 모양으로 해야 한다.
④ 본체부를 원통형으로 만들어 제단을 원의 중심에 설치해야 한다.
⑤ 윗면이 정사각형인 육면체형 평면 위에 반원구 모양을 쌓아야 한다.

30.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정자를 해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창덕궁 후원의 부용정은 왕이 좋은 경치를 완상하기 위해 지어진 건축물이다. 숲과 연못 사이에 지어진 이 정자는 '아(亞)'자 형태로 만들었고, 정자의 일부가 연못 위로 걸치게 세워진 것이 특징이다.



① 난간 쪽 기둥 사이에 벽 대신 창호를 설치한 것은 외부와의 소통보다 차단을 중시한 것이다.
② 난간을 기단부 바로 위에 세우고 연못 위로 걸치게 한 것은 물 위에서 경치를 감상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③ 연못에 정자를 떠받치는 긴 초석 두 개를 놓은 것은 높이 차가 큰 곳에 정자를 세울 때 생기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④ 석재 기단 위에 목조 기둥의 사각 틀을 얹고 그 위에 기와지붕을 올려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지만 하나의 통일체를 이룬다.
⑤ 지붕이 아름다운 곡선으로 올려진 것은, 비바람을 막는 실용적 기능과 함께 주변 경관과 잘 조화되는 심미적 기능을 하도록 고려한 결과이다.

* 확인 사항

○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하게 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